

친문 “권리당원 비중 높아” vs 비주류 “꼬리가 몸통 흔들어”

민주 전당대회 ‘롤의 전쟁’ 확산 차기 지도부 구성 주도권 경쟁 후보 등록 앞두고 롤 개정 힘들듯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을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주 원내대표 경선부터 출발해, 내달 초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까지 친문계와 비주류가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이며, 전당대회 룰세팅부터 논란이다.

친문 핵심 의원은 13일 ‘권리당원, 대의원, 일반국민의 비중을 ‘5 대 3 대 2’ 또는 ‘4 대 4 대 2’ 정도 하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에서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이는 주장이다.

앞서 김용민 이재정 의원도 “대의원·권리당원 투표까지 비율이 60대 1”이라며 “대의원의 의사가 과다 대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대표 후보가 4명 이상, 최고위원 후보가 9명 이상일 경우 중앙위 투표로 실시되는 예비경선(컷오프) 방식에 대해 “권리당원 참여를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주장들은 친문이 포진한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여 차기 지도부 구성에서도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부에서 친문 2선 퇴

진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친문 진영이 결집해 쉐인 주도권을 쥐고 가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친문 의원은 “쉐인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쉐인’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주류 진영에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극성 당원은 2000~3000명에 불과한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며 “그렇게 되면 당은 그야말로 0.0001%가 지배하는 당이 된다”고 비판했다.

재보선 참패로 냉랭한 민심이 확인된 상황에서 ‘도로 친문당’이 된다면 인적·정책적 쉐인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당의 의사결정에서 주요한 위치에 있었거나 영향을 입었던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좀 비켜 있고, 그렇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들이 직책을 맡아 당을 이끌도록 하는 것이 책임정치”라고 말했다.

다만 14~15일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등록인데 당장 롤을 바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선수가 나오고 나서 롤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 검찰개혁 기조를 놓고도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향후 지도부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정책 기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조선인 흥기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정, 오만, 내로남불, 부동산, LH, 조국, 추-윤 갈등과 검찰개혁, 어느 것 하나 국민들께 잘했다고 내놓을만한 게 없다”고 적었다. 정청래 의원은 그러나 TBS 라디오에서 “개혁은 자전거 폐탈 밭이 항상 해야 한다”며 “인론개혁, 검찰개혁은 국민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회의 발언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과 검찰개혁, 어느 것 하나 국민들께 잘했다고 내놓을만한 게 없다”고 적었다. 정청래 의원은 그러나 TBS 라디오에서 “개혁은 자전거 폐탈 밭이 항상 해야 한다”며 “인론개혁, 검찰개혁은 국민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초·재선 당 쉐신안 공감... 초선 비판한 당원들 생각도 충정”

민주 3선 그룹 “재보선 참패 원인 부동산정책 재검토 필요”

13일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들이 4·7 재보선선거 이후 첫 모임을 갖고 당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는 3선 의원 25명 가운데 18명이 자리했다. 이들은 앞서 초선·재선 의원들이 내놓은 당 쉐신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당 중진으로서 ‘더 큰 책임’을 느낀다며 머리를 숙였다.

윤관석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보선을 통해 확인된 준엄한 민심에 대해 뼈를 깎는 성과와 혁신을 다짐했다”며 “초·재선 모임에서 나온 문제 의식에 공감하며 당의 중추인 3선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다만 윤 의원은 일부 친문 극성 당원들이 초선 의원들을 맹비난하는 것과 관련, “저희는 모두 당을 위한 관심과 충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2030 초선의원들이) 발표한 것도 당심과 민심의 반영이고, 그걸 비판한 분(당원들)도 당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030 초선 의원들이 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목했다가 당원들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은 ‘조국 사태’는 이날 모임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내년 대선을 치러내야 하는 차기 지도부 선거도 압박한 만큼 최대한 당내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았다는 것이다.

3선 의원들은 특히 부동산 정책이 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고 보고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 관계에서도 앞으로는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윤 의원은 “선거를 통해 민심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당정청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당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선거 패배 원인 분석은 한 번 더(모임) 기회를 만들어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해서 당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3선 모임은 정례화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모여 소통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 당권 주자들 15일 출마선언 후 광주 찾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출마자들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뒤 광주를 찾아 본격적인 호남 표심 경쟁에 나설 계획이다.

1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5월 2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마하는 송영길·유원식·홍영표 의원은 후보 등록을 한 뒤 15일 국회에서 각각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출마표를 던진 뒤 각각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이다.

이들은 5·18 묘지 참배 후 광주와 전남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우 의원은 출마 선언에 앞서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지역의 각 지역위원회를 찾아 당원들을 만난다.

이들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전에도 광주와 전남을 몇 차례 찾아 단체장, 지방의원, 당원들을 만나 출마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당시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에 입장을 밝히며 호남 민심을 쟁겼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조오섭 “카카오 모빌리티 불공정 유료화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독점적 지배시장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불공정 유료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달 16일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해 4일만에 선착순 2만명을 모집한데 이어 인원제한 없는 추가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도 배차 ▲부스터 ▲수요 지도 ▲단골 등록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9만9000원의 호출 수수료 징액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유료 멤버십 서비스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직영인 카카오T블루에 제공하고 있는 서



스 보다 떨어지는 하위호환인데다 카카오T블루를 비롯한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주고 자사 외의 앱 이용을 금지시키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서비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T블루가 가맹택시는 이미 승객들에게 1000원~3000원의 호출비용을 부담지우면서 실질적인 요금인상의 효과를 야기하고 있는데다 대기업이 택시 플랫폼 업체를 독점해 유료화와 요금인상의 수순을 밟고 있어 택시 업계 종사자와 국민들 피해를 입게 될 실정이다.

김승남, 부동산 중개의뢰인 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13일 부동산 중개의뢰인 보호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증보험(공제·공탁)의 보장금액은 거래 건수·계약자 수와 관계없이 1년 총액 개인중개사 1억원·법인중개사 2억 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개사가 앞선 중개사고로 보상한도를 초과했다면 보증보험 또는 공제를 믿고 중개 의뢰한 후속 중개의뢰인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현행법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설



명과 함께 보장금액과 피해 보증 내용이 담긴 공제증서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중개 계약이 끝난 후에 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중개 계약 전에 미리 손해배장에 관한 내용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공제증서에 형식적인 보장금액(1년 총액) 대신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실보장금액(총 보장금액 중 남아있는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인동 싼 빵

- ▶ 동구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 가능
-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
- ▶ PF 28억 가능
- ▶ 매매 - 21억원, 일시불 대폭 조정가
- 중개환영. 010-3605-5000

수기동 제일OP

- ▶ 20층 중 8층
- 계약 108㎡, 전용면적 67㎡
- 매매 - 1억1000만원
- ▶ 20층 중 20층
- 계약 252㎡, 전용면적 142㎡
- 매매 - 3억3천만원
- ※ 사무실 전용, 코너, 주차 편리
- 문의. 010-3605-5000

회순군 공고 제2021년 - 603호

양림원 자연휴양림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양림원 자연휴양림 지정에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연휴양림 지정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9일
화순군수

1. 명 칭: 양림원자연휴양림
2. 면 적: 417,890㎡
3. 위 치: 전라남도 화순군 사평면 사평리 산8-1 의 35필지 (붙임 필지별 편입 토지조서 참조)
4. 공고내용: 자연휴양림 지정에 위한 주민의견 청취
5. 공고기간: 2021. 4. 12. ~ 4. 26.
6. 의견제출
가. 기 간: 2021. 4. 12. ~ 4. 26.
나. 접 수 처: 화순군청 산림산업과
(☎ 061-379-3732)
7. 열람장소: 화순군 산림산업과(3층) 산림휴양팀
8. 경과조치: 위 기간까지 의견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관계인으로 부터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검토하고자 함.

※ 본 공고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검토 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및 고시할 계획이며, 본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산림산업과 (☎ 061-379-37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감소공고

당 회사는 2021년 4월 12일 사원총회 결의로 자본금의 총액 금 370,000,000 원 중 320,000,000 원을 감소하여 자본금을 50,000,000 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출자자수 32,000좌를 1좌의 금액 금 10,000,000 원으로 하여 유상소각하고 총 발행주식수 37,000좌를 5,000좌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일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1년 4월 14일
유한회사 백양건설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42번길 10-9 101호(운암동)
대표이사 백양기

주식 분할로 인한 주권제출 공고

본 회사는 2021. 3. 30. 정기주주총회 특별결의로 1주의 금액 금 10,000원의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금 500원의 주식 20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구 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의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구 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 4. 14
주식회사 주아라초이스름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57. 2층 (화정동, 광우당빌딩)
대표이사 이 현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21년 4월 13일 주주 결의로 자본금의 총액 금 410,000,000 원 중 금 160,000,000 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액면금액 금 10,000원의 주식 25,000주에 대하여 유상소각하고 발행주식 총수 41,000주를 16,000주로 감소하기로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일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또한 구 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 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4일
주식회사 한성토건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수성2길 6
대표이사 김기현

산행안내

4월18일(일)

▲광주K산악회 4월18일(일) 총복 총주, 보련산&국망산, 염주체육관 06:00, 동아병원 06:05, 롯데백화점 06:10, 광주역 06:15, 문예후문 06:25, 비엔주차장 06:30 * 다음 카페 광주K산악회 ☎ 010 7794 692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복지와 함께 갈매은 길 69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본회매출매거진
신문구독 220-0551 | 예행구독 220-0550